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시민의 품으로 오라”

11월 8일 광양읍 유당공원서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기원 한마음 축제 개최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오는 11월 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양읍 유당공원에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기원 국가유산 활용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부사업인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과 광양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산재해 있던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아 집중 운영함으로써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유도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 문화유산 관련 단체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문화유

산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광양의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써온 ▲광양장도전수교육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용지큰줄다리기보존회 ▲광양시사라실예술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 5개 단체가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비롯해, 광양의 대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전시·체험 형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광양장도전수교육관의 '장도 문양 책갈피 만들기' ▲광양공시전수교육관의 '전통 활쏘기 체험' ▲용지큰줄다리

기보존회의 '짚공예 계란꾸러미 만들기' ▲광양시사라실예술촌의 '쌍사자 석등 킷팅 만들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의 '쌍사자 석등 빵 만들기' 등이 준비돼 있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줄타기 전승교육사 권원태 명인의 전통민속공연도 함께 펼쳐져,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국가유산 활용 한마음 축제는 시민과 함께 광양의 국가유산이 지닌 가치를 되새기고,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



양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구례군, '제11회 오맥축제 오라! 구례' 개최

지역상인·청년점포·예술인이 함께하는 구례 대표 야간 축제

전남 구례군은 오는 11월 8일(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구례읍 5일시장(상설무대) 일원에서 「가을밤! 낭만가득!! 제11회 오맥축제 오라! 구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맥축제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형 야간문화 축제다. 이번 축제는 '가을밤! 낭만가득!!'을 주제로, 지역상인과 청년점포, 주민협업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소규모 맥주 축제로 진행된다.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가수 주태령, 정소라, 김한나, 러브어스 앙상블의 무대가 이어지며, 가을밤을 낭만적인 음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500원에 500cc 생맥주 1잔(1인 최대 4잔)을 제공하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교환권(쿠폰)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청년점포와 주민점포가 참여해 튀김, 부추전, 닭강정, 떡볶이, 치킨



등 다양한 안주거리와 수제빵, 공예품을 선보인다. 버스킹 공연과 게릴라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 마지막 오맥축제가 구례읍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함께 웃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대표 야간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0일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과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3주간의 1급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을 완료했다.

이번 교육은 2급 걷기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2급 자격 과정보다 한 단계 높은 전문교육으로, 지역 내 걷기운동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실시됐다. 교육 결과 총 12명이

무안군, 전문 걷기리더 양성, 건강한 무안을 걷다

교육 수료 후 한국걷기협회 인증 평가를 거쳐 1급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1급 과정은 ▲걷기이론 ▲자세분석 ▲안전지도법 ▲현장코칭 실습 ▲하체근력 운동 ▲보행측정장비 관리법 등 다양한 심화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회소

성 높은 교육과정이다. 특히 수료 후에는 지역 걷기동아리 코치, 건강 걷기 프로그램 강사, 보건소 건강 생활실천사업 협력 강사 등 지역의 전문 걷기 리더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과정을 통해 전문 걷기지도 인력풀을 확충하고, 지역별 걷기동아리 운

영의 자생력을 높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걷는 무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1급 걷기지도자는 단순한 걷기운동 지도자를 넘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건강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영광군, 보도블럭 정비 및 파손 구간 전수조사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보도블럭의 정비 및 파손구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영광읍 내 일대의 인도 및 보행로를 대상으로 파손, 들뜸, 침하, 미끄럼 위험 구간 등을 위주로 점검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보수·교체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도블럭 파손은 작은 문제 같지만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담양군, '담양호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30일 '담양호 환경정화 캠페인'을 담양군 용면에 소재한 담양호 용마루길 일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호 환경정화 캠페인'은 이번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담양호 인근에 떠밀려 온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수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담양호 새마을을 양식계 회원,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총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담양호의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경관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필라테스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기관인 '필라테스 모엣'과 함께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신체 활동 부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2025년 8월부터 총 20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유연성, 코어 근력 강화, 자세 교정 등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신체 건강 증진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 및 자존감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